

# ‘행정 전산망 개념의 근본을 형성’

## -행정전산화 시범연구 사업-

### 안문석

#### 1. 서론

1978년에 시작한 행정전산화 시범연구 사업은 우리나라 행정전산사(行政電算史)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이다.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국장이었던 강경식 국장, 성기수 박사, 그리고 안문석 박사에 의하여 발의되고 구체화된 연구 사업이 바로 이 행정전산화 시범연구 사업이다.

1970년대 초까지는 행정부처의 전산화가 KIST 전자계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필요한 컴퓨터는 KIST 전자계산조직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취해 왔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보아서 낭비적인 요소가 적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각 기관은 단독 컴퓨터 도입을 선호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경제기획원 예산당국에게 예산편성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기획원이 취한 조치의 하나는, 과학기술처에 중앙전자계산 센터를 설립하고 다른 기관들이 이 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각 부처들이 단독 컴퓨터를 선호하는 행태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중앙전자계산소는 그후, 총무처로 이관되어 현재의 정부전자계산소가 되었다).

경제기획원이 취한 또 다른 조치 가운데 하나가 기반 행정 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업무

와 등기업무를 전산화하여 정보 고속도로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수출입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서 각 부처의 공동이용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상, 제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행정전산화 시범사업은 이런 시기에 출범한 것이다.

## 2. 행정전산화 시범 사업의 목표와 시범 지역의 선정

행정전산화 시범 사업의 목표는,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전국 규모의 사업에 참고로 하자는 데에 있었다. 이 아이디어는 강경식 국장과 성기수 박사, 그리고 안문석 박사 사이의 수차에 걸친 회합에서 성안되었고 곧 구체화되었다.

시범지역으로는 강 국장이 평소에 잘 알고 지냈고, 경제기획원 직원 사이에서 가장 열의가 있는 내무행정관료로 지목받고 있었던 정종택 씨가 지사로 있는 충청북도로 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충청북도를 방문하고 정 지사와 토론을 거쳐서 충청북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당시 부지사는 전석환 씨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사업은 강경식 국장과 성기수 박사 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공식적인 연구책임자는 안문석 박사가 맡았다.

## 3. 시범사업의 추진경과

안문석 박사는 신동필 씨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예산국 팀을 중심으로 충북 팀을 편성하였다. 신동필 팀장은 예산국 팀을 중심으로 하여 충북 팀을 구성하고 이들을 청주에 파견하였다. 아파트를 두채 전세낸 후, 충북 팀은 합숙을 하면서 도청에 컴퓨터실을 만들고, 각 군청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특히 음성군에서는 각면까지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형성은 충북 직원 가운데서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KIST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KIST 충북 팀들이 협동하여 개발해 나갔다.

1979년 10.26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충북 팀은 연구를 계속해 나갔고, 1980년 봄에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주재하는 월례 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5공화국이 수립되고 예산국장과 충북지사가 바뀌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측의 열의가 식었다. 특히 내무부의 수동적 자세 때문에 연구사업은 1980년대가 되면서 사실상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양성된 충북의 요원들은, 그후 내무부의 전산 관련 계획에서 맹활약을 하였고 이것은 그후 기간전산망 중 행정전산망 개념의 근본을 형성하게 되었다.

#### 4. 결론

본 연구가 준 영향을 정리해 본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컴퓨터 망 사업이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행정전산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적극적으로 경험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그후 정부의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수립과 추진에서 소중하게 이용되었다.

넷째, 행정전산화 사업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처 사이의 조정을 포함하는 광범한 행정문제라는 인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시작된 이 연구는 최규하 대통령 시절을 거쳐 전두환 대통령에서 마감을 한다. 정치적 변혁기에 연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한 예로 연구 말기에는 신동필 팀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그만 두고 박상봉 팀장이 뒷정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성기수 박사, 강경식 국장의 계획하에 안문석 박사, 신동필, 박상봉이 실무를 맡은 행정전산화 역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연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5. 제1단계 연구참여자

안문석(연구책임자)

신동필(집행책임자)

연구원 : 정홍, 이준석, 김재규, 서영호, 송대원, 정경수, 박종권, 조성진

위촉연구원 : 문장호, 김형섭, 조남식, 이광진, 심 량, 윤호중, 김순오, 이성동, 홍현수

자문 : 김태승, 도기갑, 심재곤, 정인무, 권혁태, 이장근, 허문희, 이욱재

\* 마무리 단계에서는 박상봉이 집행책임자가 됨.